

# 『高宗實錄』 편찬 과정에 관한 고찰

-李太王實錄資料를 중심으로-

구동준 (경기대학교)

## 1. 서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편년체 사료로써, 제1대 태조부터 제25대 철종까지 472년간의 기록을 정리한 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사후에 춘추관의 사관들이 사초를 요약 및 정리하는 식으로 편찬되었다. 이렇게 편찬된 실록은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 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세계사에서 보아도 유례를 찾기 드물 정도로 기록이 자세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864년부터 1910년까지 고종과 순종의 48년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으나,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은 일반적인 조선왕조실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현재 이 두 실록은 기록된 사실의 진위여부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실록들과 다르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본 제국의 산하 기관인 ‘이왕직 실록편찬위원회(李王職 實錄編纂委員會)’에서 편찬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왕이 승하하면 곧바로 선왕의 실록 편찬을 시작했던 선례와는 다르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1927년에 편찬작업이 시작되어 1935년에 마무리되었다. 고종이 1919년에 승하한 후 8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이러한 점에서 더욱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종이 즉위한 1863년부터 순종이 승하한 1926년은 한국사의 개항, 대한제국, 한일병합 등 한국사의 격동기에 해당한다.<sup>1)</sup> 이 시기의 1차 사료인 두 실록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학계에서는 일본의 주도하에 편찬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보인다. 필자는 이와 같은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종실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비판적 사료 검토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종실록』 편찬에 참고되었던 왕공족실록인 『이태왕실록(李太王實錄)』과 『이태왕실록자료(李太王實錄資料)』도 함께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종실록』과 『이태왕실록』, 『이태왕실록자료』를 살펴보고 일본이 위 역사서들을 어떻게 편찬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 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 2. 『고종실록』과 역사실록의 공통점과 차이점

『고종실록』은 고종 즉위년인 1863년부터 퇴위년인 1907년까지 45년간의 기사를 48권 48책에 수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고종실록』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본인들이 다수 편찬 과정에 관여하였다. 그들이 실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본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종실록』은 이왕직 실록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였다. 실록편찬위원회가 1930년 4월에 설치됨과 동시에 실록편찬위원회의 활동과 편찬방향, 편찬원칙에 대한 내규를

1) 신명호, 2016, 「『高宗純宗實錄』과 『孝明天皇紀』의 편찬배경과 편찬체제 비교」, 『장서각』 3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47쪽.

마련하였다. 그중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實錄編纂委員會內規

제6조 편집위원은 각 사료에 기초하고 歷史實錄에 준해 年次를 미루어 실록을 편집한다.<sup>2)</sup>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종실록』은 『철종실록』 이전 실록들의 방식을 따라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실록』 역시 이전의 실록과 마찬가지로 편년체 방식을 사용했으며, 즉위년 앞에 총서를 수록하고 부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종실록』은 고종 사후 8년이 지나 편찬되기 시작했으므로 『조선왕조실록』의 전통과 다른 점이 있다. 일제가 왜 실록 편찬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았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효명천황기(孝明天皇紀)』<sup>3)</sup>의 편찬방식을 바탕으로 일본 궁내성 도서관에서 이왕가 실록 편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공백기가 생겼다는 설이 지배적이다.<sup>4)</sup>

또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본과 부분, 목록과 목록부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이왕직 실록편찬위원회에서는 『고종실록』을 『고종실록정본』 48책, 『고종실록부분』 48책, 『고종실록목록』 4책, 『고종실록목록부분』 4책으로 나누어 편찬했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sup>5)</sup> 이왕직 산하에서 진행되었던 실록 편찬의 한계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 3. 이왕직의 설치와 실록편찬

이왕직(李王職)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왕족(朝鮮王族)인 이왕가(李王家)를 관리하던 일본 궁내성(宮內省) 산하의 기구였다. 일제는 왕공족을 일본 황족의 예우에 준하여 대우하면서 식민지 조선 통치의 상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들이 대한제국 황족들의 지위가 병합 이전과 동일하게 영위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식민지 체제에 순응하도록 유도한 것이다.<sup>6)</sup> 일제는 한국병합조약에 따라 국권의 이양과 함께 1910년 9월 1일 이왕가를 창출하고,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시행하면서 대한민국 황제(순종)를 ‘이왕’으로 옹립하고 대한민국 태황제(고종)를 ‘이태왕’으로서 예우했다.<sup>7)</sup> 이로써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 되었고 순종은 ‘창덕궁 이왕’이 되었다. ‘왕공족’이라는 단어는 한국 왕실이 일본 황실의 하부로 편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용어’이기도 하였다.<sup>8)</sup>

이왕직은 이왕가의 유지와 관리가 주된 업무였다. 구 황실의 의전과 사무를 담당한 연유로 5대 장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이외에는 조선인만이 장관에 보임되었다. 특히 시노다

2) 신명호, 2016, 위의 논문, 49쪽.

3)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효명천황(孝明天皇, 고메이 천황)의 치세를 다루고 있으며, 막부시대가 개막된 이후 처음으로 편찬된 실록이다.

4)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참고해볼 수 있다.

신명호, 2016, 「『高宗純宗實錄』과 『孝明天皇紀』의 편찬배경과 편찬체제 비교」, 『장서각』 3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영숙, 2014, 「李王職의 『高宗·純宗實錄』 편찬사업과 그 실상」, 『사학연구』 116호, 한국사학회.

5) 신명호, 2016, 위의 논문, 51쪽.

6) 이왕무, 2021, 「일제 강점기 李王職 연구 - 조직 구성의 배경과 운영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82집, 동양고전학회, 155쪽.

7)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2016, 「2개의 고종실록 편찬을 둘러싼 궁내성·이왕직의 갈등 - 아사미 린타로와 오다 쇼고의 역사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4호, 고려사학회, 52쪽.

8) 이왕무, 2016,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王公族의 탄생」, 『한국사학보』 64호, 고려사학회, 21쪽.

는 차관이던 1927년부터 실록편찬위원장을 맡았다. 시노다는 경성제국대학 교수이자 실록편찬위원회 감수위원 오다 쇼고(小田省吾)와 함께 『고종실록』, 『순종실록』의 편찬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고종실록』, 『순종실록』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미비하고 관심도가 부족한 이유로 보인다.

#### 4. 『이태왕실록』과 『이태왕실록자료』

일제는 이왕가를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여타 왕족들과 마찬가지로 궁내청 도서관에서 이왕가에 대한 ‘왕공족실록(王公族實錄)’을 편찬하였다. 이 중 덕수궁 이태왕(고종)의 왕공족실록이 『이태왕실록(李太王實錄)』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을 모은 실록자료인 『이태왕실록자료(李太王實錄資料)』를 기반으로 궁내청 도서관의 장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sup>9)</sup>가 1919년 6월 2일에 편찬을 시작하여 1923년 11월 30일에 완성하였다.

『이태왕실록』은 일본 궁내청에서 일본 황실의 예에 따라 편찬한 사료이기 때문에 편년체의 『조선왕조실록』과 다른 점을 보인다. 아사미의 전임자 모리 린타로(森林太郎)가 도서관장을 지냈을 때 그는 편년체식 방식이 작업량이 너무 많다고 하여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기사본말체 형식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 형식은 메이지 천황대의 정사 『명치천황기(明治天皇紀)』의 서술 방식이 되었으며 『이태왕실록』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태왕실록』의 체재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의 형태와 상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이태왕실록』과 『이태왕실록자료』의 체제<sup>10)</sup>

『이태왕실록』과 『이태왕실록자료』의 체제	
<p>『이태왕실록』 2권</p> <p>제3권 甲午六月ノ大院君裁決 제4권 甲午十一月ノ新式稟裁 제5권 乙未八月ノ事變丙申二月ノ播遷 제6권 丁酉ノ還宮即…皇帝位 제7권 乙亥ノ法規校正 제8권 丁未ノ遜位 제9권 李太王ノ晩年</p>	<p>『이태왕실록자료』 1권</p> <p>第1類第1種자료 제1호 李王家先系~ 자료 제17호 八高祖圖</p> <p>第2類第1種자료 제1호 李太王行狀~ 자료 제5호 李太王行狀</p> <p>第3類第1種자료 제1호 王公履歷書~ 자료 제2호 王公履歷書</p>

<표 1>을 보면 이태왕실록과 이태왕실록자료 모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편년체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건에 따라 서술하는 기사본말체 방식을 따랐음을 알 수 있으나, 일부는 편년체처럼 쓰인 것을 보아 이태왕실록은 기사본말체와 편년체를 혼합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태왕실록』은 고종의 일대기를 정리한 실록인 만큼 추후에 편찬된 『고종실록』은 『이태왕실록』을 상당수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 때문에 『이태왕실록』과 『이태왕실록자료』는 『고종실록』의 연구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하지만 현재 『이태왕실록자료』가 일본 궁내청에만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어렵다.

9) 아사미 린타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정옥재, 2016, 「日本宮内廳所藏‘公族實錄’의 편찬과 특징－李熙公實錄·李熙公實錄資料·李垓公實錄·李垓公實錄資料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4호, 고려사학회.

10) 정옥재, 2017, 「日本 宮内廳 所藏 『李太王實錄』·『李太王實錄資料』의 체제와 특징」, 『한국사학보』 69호, 고려사학회, 403쪽, 408쪽. 일부만 인용.

특히 『이태왕실록자료』는 자료집으로서 가치가 풍부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태왕실록자료』 5권과 6권에 등장하는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자료로 경복궁 중건 시기의 일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sup>11)</sup> 현재는 『이태왕실록자료』의 자료들이 일부만 검토되었기 때문에 『고종실록』과 『이태왕실록』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태왕실록자료』를 앞으로 추가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 5. 결론

지금까지 『고종실록』과 이왕직, 그리고 『고종실록』의 편찬 근거가 된 『이태왕실록』과 『이태왕실록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종실록』, 『이태왕실록』, 『이태왕실록자료』 등은 모두 일제가 편찬하였고 일본인이 편찬을 주도했기 때문에 일본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고종실록』에 1985년 음력 8월 20일에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에 대해 일본이 깊게 관여했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sup>12)</sup> 때문에 『고종실록』 이하 『이태왕실록』, 『이태왕실록자료』 등 이 시기의 사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 자료들의 비판적 해석을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이태왕실록자료』와 『이태왕실록』, 『고종실록』을 비교 연구해보아야 한다. 특히 『이태왕실록자료』는 아사미 린타로가 원사료를 충실히 기록하였고, 왜곡이나 수정, 가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이다.<sup>13)</sup> 이에 따라 연구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태왕실록자료』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고 연구 대상으로서의 인식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태왕실록』과 『이태왕실록자료』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1) 정옥재, 2017, 위의 논문, 412쪽.

12) 『高宗實錄』 卷33, 高宗 32年 8月 20日,

묘시(卯時)에 왕후(王后)가 곤녕함(坤寧閣)에서 붕서(崩逝)하였다. 【이보다 앞서 훈련대(訓練隊) 병졸(兵卒)과 순검(巡檢)이 서로 충돌하여 양편에 다 사상자가 있었다. 19일 군부 대신(軍部大臣) 안경수(安卿壽)가 훈련대를 해산하자는 의사를 밀지(密旨)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에게 가서 알렸으며, 훈련대 2대대장 우범선(禹範善)도 같은 날 일본 공사를 가서 만나보고 알렸다. 이날 날이 셀 무렵에 전(前) 협관(協辦) 이주회(李周會)가 일본 사람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와 함께 공덕리(孔德里)에 가서 대원군(大院君)을 호위해 가지고 대궐로 들어오는데 훈련대 병사들이 대궐문으로 마구 달려들고 일본 병사도 따라 들어와 갑자기 변이 터졌다. 시위대 연대장(侍衛隊聯隊長) 홍계훈(洪啓薰)은 광화문(光化門) 밖에서 살해당하고 궁내 대신(宮內大臣) 이경직(李耕植)은 전각(殿閣) 뜰에서 해를 당했다. 난동은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되어 드디어 왕후가 거처하던 곳을 잃게 되었는데, 이날 이때 피살된 사실을 후에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즉시 반포하지 못하였다.】

13) 정옥재, 2017, 위의 논문 참조.